



## 제 음악과 삶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베르나르 코디텍 Werner Kodytek

글 하양자

그에게는 순례자의 공기가 물어난다. 조계사 대웅전 앞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그를 보았을 때부터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긴 얘기를 나누고 난 뒤까지, 도심 거리를 함께 걸어 불교 미술 작품들이 걸려있는 전시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에도 그에게선 무엇보다 먼 사막 땅의 허허로움과 그 모래들에 부는 바람과 서늘하게 가라앉은 격정의 흔적이 느껴진다. 그는 명상수행 없이는 삶이라는 고독을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수행자이며 동시에 불교 음악가이다. 또 손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이기도 하다.

“저는 불교음악에서도 제가 불교에서 느꼈던 신선한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미 제게 익숙한 서양음악화한 불교음악은 아무 영감을 얻지 못하니까요. 저는 한국 불교 음악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의 범파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면서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요. 샤머니즘적 정신이 느껴집니다.”

지난 5월 31일 단오 날, 그는 봉원사에서 하루 종일 벌어지는 영산재를 참관했다.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의식들의 의미들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범파의 음률과 이어지는 동작 하나하나에 깊이 빠져들었다. 어쩌면 내용을 모르기에 자신만의 의미와 해석을 부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중하게 펼쳐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접촉 등을 느꼈고 이 의식이 이 넓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조화로운 소통을 위한 한바탕 제전임을 생각했다. 그 날 하루 푸르게 펼쳐지고 다시 접히는 원색의 제의와 바람에 날리는 무수한 번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리고 정신 깊숙이 울리는 범파.

“많은 불교 명상음악들이 부드럽고 치유적입니다. 꿈꾸듯 서정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교 명상 음악은 우리의 정신을 강렬하게 흔들어 깨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음악은 기존의 사고에서 보면 좀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힘이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자신의 불교 명상음반을 발매했다. 사람들이 좀더 깨어나기를 바라며, 그들의 정신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그가 알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함께 알고 느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이 긴 삶의 길을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기를 바란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음악이 이 세상의 소통을 돋는 매개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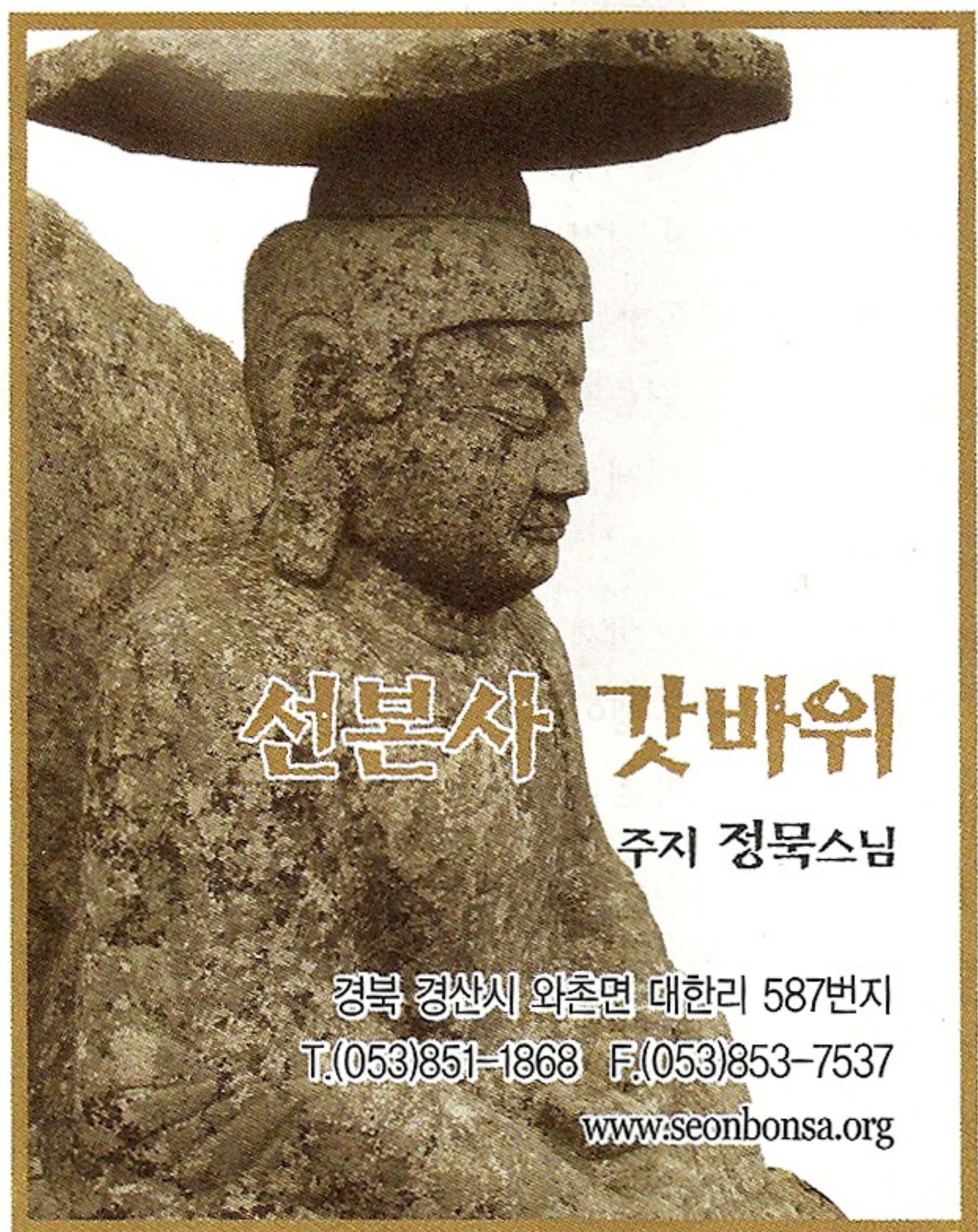
처음 만나던 날 그는 매운 낙지볶음밥을 정말 진지하게 먹었다. 밥 한 숟갈에 물 한 번씩. 그래도 끝까지 포기

하지 않았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심각한 계율의 위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는 1주일의 3일은 비엔나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4일은 차로 1시간 거리인 청가리의 조그만 시골 Pusztacsalad에 세운 명상센터 Shunya Sangha Vihara에서 지낸다. 1달 휴가를 내어 아시아의 사찰들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전에도 서너 차례 왔다. 이번에는 갑사, 무상사 등 충청도 지역 사찰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한국불교의 강한 전통, 사찰의 고아함, 스님들, 승가교육 체계 등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10월 예정인 불교음악포럼에 참석차 다시 이곳에 올 예정이다. ॥

---

하양자님은 국제포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번역과 경전공부 모임인 <반야학당>을 열고 있다.



**선봉사 갓바위**

주지 정목스님

경북 경산시 외촌면 대한리 587번지  
T.(053)851-1868 F.(053)853-7537

[www.seonbonsa.org](http://www.seonbonsa.org)

일본에서 선을 배우고 태국에서 승려가 되었다가 인도 부다가야에서 속세로 돌아오다

그는 약 20년 전 일본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일본의 참선 전통은 임제종의 화두수행과 묵조선, 이 두 가지인데 그는 반년 동안 선원에 머물면서 묵조선을 수행했다. 그런데 일본의 선 수행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수행에만 쏟아 봇고 싶었는데 의외로 다른 일들에 지장을 받아 수행의 흐름이 자꾸 끊기는 것 같았다.

좀더 조용한 곳에서 수행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태국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출가했다. 1년 반 동안의 출가생활은 치열한 수행기간이었다. 새벽에 다른 태국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명상에 들었다. 7달 동안 묵언을 하기도 했다. 하루 20분씩 지도스님과 수행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외에는 어떤 누구와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거친 의식들이 체에 걸리지면서 사고가 단순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태국에서 다시 미얀마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 그리고 부처님이 도를 깨우치신 부다가야에서 승려의 옷을 벗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원래 제가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연극, 조각, 음악 등을 즐기고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승려들이 이런 활동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제게 출가는 집중적인 수행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태국을 택한 것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1981년, 이제 그는 평범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수행이라는 것이 사찰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삶이 바로 수행이지 않는가. 그는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말 그대로 카우보이 생활을 했다. 방목하는 소떼를 관리하며 넉 달 동안 산속 낡은 집에서 혼자 지냈다. 오직 자연만 있을 뿐이었다.

만약 명상수행을 몰랐다면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했으리라.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넓은 그물망 속의 한 매듭으로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 불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원리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하나가 모두를 이루며 그 모두가 또 하나하나를 이룬다. 모든 사물과 존재들은 관계 속에서 작용하며 이 관계 속에 부처의 가르침을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명상수행을 통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꿈과 바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관찰하며 고통의 원인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고통은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상황도 받아들인다.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다. 이 세상은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고통은 곧 내 고통이기도 하다. 또한 내 고통은 곧 그들의 고통이기도 하다. 내가 내 자신의 고통을 주시하고 내려놓음으로써 고통을 없애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내 고통도 없애는 것이다.

“저는 사람들의 고통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아픈 몸을 만져보면 마음의 고통도 느껴집니다. 저는 그들의 몸의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도 함께 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집중적으로 명상한다.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단지 고통에만 휘둘려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불교음악을 만듭니다

불교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은 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그는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범파와 같은 쇼묘Shomyo와 신도나 불교사찰에서 의식 때 사용되는 가가쿠Gagaku를 공부했다. 그는 서양적인 불교음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